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주간 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립보서 1:21)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창인 편집인: 우기전 편집국장: 조선근

11월 7일까지 매주 목요일 복지관 지하1층에서

제2회 주부교양강좌 시작

첫째 강좌 원동연 박사의 자녀 교육, 250여명 참석

둘째 강좌(10월 17일)는 안덕자 교수의 '대화 기법'

전 도위원회(위원장 강은원 장로)에
서는 지난 10월 10일 제2회 주부
교양강좌를 복지관 지하 1층에서 시작
했다.

250여명이 참석한 첫날 강좌에는 원
동연 박사가 DY학습법에 대해 강의를
하며 진정한 교육의 의미와 바른 자녀교
육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여 참석한 주부
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강좌는 11월 7일까지 매주 목요
일, 주부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지난 4월 16일부터 5월 14일까지 실
시되었던 제1회 주부교양강좌에 이어
제2회로 실시되는 주부교양강좌는 주님
을 모르는 사람들을 교회에 초청하여 강
의와 함께 교회의 분위기를 전달하여 자
연스럽게 전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목적
으로 실시되고 있다. 따라서 강좌도 기
독교적인 내용보다는 일반 주부들이 관
심을 갖고 있는 자녀 교육, 부부 대화, 자

기 정체성, 피부 관리 등 일반적인 내용
들로 강좌를 꾸몄다.

주로 교회내 여전도회 회원들이 주
위에 알고 있는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초
청하여 함께 강좌에 참석해야 하는 것으
로 여전도회원들의 관심과 참석이 크게
요망된다.

이번 주부교양강좌의 주제는 '행복
한 가정 만들기'로 10월 10일부터 11월
7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
시까지 진행된다. 본 강좌의 강사는 각
분야의 교수 및 전문가로 구성되어 유익
한 시간이 될 것이다. 장소는 충현복지
관 지하 1층 가나홀이다.

남은 강좌의 주제 및 강사는 다음과
같다.

▶ 지난 10월 10일에 모였던
주부교양강좌에서
원동연 교수가 강의하고 있는 모습



10/17 대화 기법 안덕자 교수	부부, 자녀간의 대화를 슬기롭게 이끄는 법-부부간 대화 기법, 자녀간의 대화와 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하고 행복한 가정을 가꾸는 지혜로운 대화법	이화여대 교육심리 석사, 연대 신대원 석사, 한국 심리상담연구소 교수, 아세 아연합신학대학원 교수, 임상목회대학 원 교수, 서울여대, 이화여대 교수
10/24 스트레스우울증 이근덕 박사	자신의 정체성 및 우울증의 예방과 치유법-갈등에 대한 소개를 통하여 공감하고 예방과 치유에 대하여 알아봄	한양대 의대 박사, 이근덕 신경정신과 원장, 한양대, 순천향대, 경희대 신경정 신과 외래교수
10/31 자기관리 이순희 원장	여성의 매력과 자기 가꾸기-자신을 위주로 어떻게 가꿀 것인가? 모델(체격, 연령, 성향)별 차밍기법 소개	단국대 수학, 독일 쾰른 코즈메틱전문 학교, 이순희 스킨케어살롱, 문화일보 미용칼럼 집필
11/7 노래부르기 유혜정 강사	흥겨운 노래 배우기를 통한 스트레스 해소	안양대 종교음악, 유혜정 노래부르기 교실, 직장 노래부르기 강사, 어린이 동 요교실

10월 23일(수) 1부예배 후

‘성경적 건강관리법’ 특강

재미 교포 김정수씨(68세, 미국 산
호세영락교회)의 '성경적 건강관리법'
에 관한 특강이 10월 23일(수) 수요일부
예배 후 본당에서 실시된다.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산호세에서 세타소를
경영하는 김정수씨는 매년 고국을 방문
하여 '건강'을 주제로 강의하고 있다.

김정수씨는 그의 부친과 조카의 죽
음을 보며 건강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

때부터 100여권의 건강 관련 서적을 탐
독하고 각종 건강세미나에 참석하여 나
름대로의 건강법을 연구하면서 체계화
시켜 '성경적 건강 관리법'을 만들었
다. 김정수씨는 봄, 가을 한달 가량 국내
에 머물며 각 단체 및 교회, 중·고등학교
를 순회하면서 건강법을 강의하고 있
다.

동서울노회 여전도회연합회
찬양경연대회 실시

지난 10월 7일(월) 본당에서 동서울
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찬양경연대회가
열렸다.

15개 교회에서 530여명이 참가한
이날 대회에서 충현교회에서는 루디아
여전도회의 김송자 집사가 독창부문에
서 1등을, 호산나찬양대가 합창 부문에
서 2등을 했다. 특별 찬조로 우리교회의
크로마하프·만돌린연주대가 찬양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렸다.

부목사초빙

1. 자격

- (1) 총신대신대원 졸업자
- (2) 목회 경력자
- (3) 2종 보통 운전면허증 소지자

2. 제출서류

- (1) 이력서
 - (2) 주민등록등본
 - (3) 자기소개서
 - (4) 건강진단서
 - (5) 당회장 추천서
 - (6) 최종학교 및 총신대신대원
졸업증명서(사본)
- 각 1통씩
단, (4), (5), (6)의 서류는 초빙 확
정 후 제출

3. 기타

- (1) 서류 제출처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충현교회 기획실
☎ 552-8200(교430)
- (2) 제출 마감
1996년 10월 31일
- (3) 면 담
서류 심사 후 개별 통보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충현강단

● 김창인 목사의 시편 강해 ●

환난을 면한 자의 찬송과 교훈(1)

(시편 34:1-10)

본 시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어려운 환난을 만나 인간적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입장에 처했으나 하나님의 권능으로 해결할 받은 후 그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하며 성도들에게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쓰게 된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구국 공신 다윗은 말 한마디에도 잘못이 없으며 정직하고 깨끗합니다. 다만 한 가지 흠이 있다면 남보다 너무 잘난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이렇게 훌륭한 신하 다윗을 죽이려고 아홉 번이나 계획을 세워 다윗 장군은 도망을 다닙니다. 어떤 때는 골짜기에서 비를 맞으며 찬바람에 떨어야 되고 어떤 때는 광야에서 배고프고 안타까운 지경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고생을 하다가 외국으로 도망하면 사울 왕이 쫓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마침내 부하들을 거느리고 블레셋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블레셋의 신하들이 다윗 장군을 그들의 왕 앞에 데리고 가서 천하장사 골리앗을 죽인 자가 바로 이 사람이라면서 죽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위기를 만났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다윗은 땅에다 침을 질질 흘리면서 손가락으로 침을 찍어 이겨서 때문에 끄적끄적 낙서를 합니다. 블레셋의 임금은 신하들에게 미친 사람을 데리고 왔으면서 오히려 신하들에게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감사한 마음으로 지은 시가 시편 34편입니다.

1. 환난을 면한 자의 찬송이 어떠합니까

'받은 바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입으로만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중심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사랑하겠습니다.' 혼자 기뻐서 찬송을 부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돈, 권세, 지혜, 지식, 미모, 능한 기술 등을 자랑합니다. 다윗도 인간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거문고를 들고 앉으면 비교할 자 없는 연주가요, 붓을 들면 파타올 자 없는 문학가요, 칼을 뽑아 들면 싸워서 이길 자 없는 천하의 장수입니다. 그런데 죽을 고비에서 생각해 보다 자기의 지혜로 살겠다고 했던 것이 죽음의 골짜기로 스스로 돌아가서 자살을 할 뻔했던 결과가 된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바로 사랑하면 교만하던 사람이 교훈을 받아서 겸손해지고 내가 하나님을 바로 사랑하면 악을 행하다가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이 힘을 얻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로 사랑하면 어리석은 자가 지혜를 얻고, 믿음으로 살려는 자가 힘을 얻고, 악을 행하던 자들도 조심할 것입

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항상 살피 주십니다. "나와 함께 여호와의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 세" (34:3)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을 들었느냐? 너희들도 하나님을 사랑해라' 권면하는 말씀을 합니다.

2.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이 무엇입니까

(1) 모든 일을 하나님과 의논할 수 있습니다

행복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의 차이는 기쁜 일을 만났을 때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문제를 해결해 줄 만한 사람이 있어서 마음놓고 의논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하지만 의논할 사람이 없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은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 아버지" 하면 "왜 그러니?"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서 마음껏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의 복이 없습니다. 너무나 큰 복입니다.

(2) 하나님의 광채를 입습니다

하나님과 의논만 하면 하나님의 얼굴에 비치는 광채 속에 들어 가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할 때 어두움에 있던 우리에게 하나님 얼굴의 빛이 비쳐옵니다. 햇빛이 비쳐 오면 어두운 밤의 세력이 소리없이 도망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 빛이 우리 마음에 비쳐오면 마음의 근심 걱정이 도망을 갑니다. 주위에 있던 악마가 다 도망을 갑니다. 풀과 나무는 태양빛이 비추어야 자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얼굴 빛의 광채를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살 뿐만 아니라 자라납니다.

햇빛이 비추면 모든 것은 소독이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어 오게 되면 마음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생각이 다 소멸되고 새 사람이 됩니다.

(3) 억울함을 인해 복을 받게 됩니다

성도에게는 의를 행하다가 억울함을 당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의를 행하다가 억울함을 당하면 악을 행하다가 패하는 것보다 백 배나 못한 마음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분한 마음을 참으면 억울함을 당하기 전보다 명예가 올라가고 권위가 올라가며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이 두터워집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모든 억울함을 당하는 것을 인하여 복을 주십니다. 요셉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바로 믿다가 억울함을 당하는 것을 조금도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에게는 의를 행하다가 억울함을 당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분한 마음을 참으면 억울함을 당하기 전보다 명예가 올라가며 존경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이 두터워집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모든 억울함을 당하는 것을 인하여 복을 주십니다.



'내가 인간들에게 억울함을 당했지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참았으니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실지야.' 다윗은 도망가면서도 큰 복이 임할 것을 내다보고 기뻐합니다.

(4) 하나님의 사자가 지켜 줍니다

다윗이 블레셋 왕의 궁궐에서 벗어난 것은 너무나 신기한 구원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 앞에 '나도 못보았고 누구도 못보았지만 하나님의 천사가 나를 지켜주나' 생각을 했습니다.

(5) 영육간에 모자람이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잘 믿으려는 성도들이 영육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모자라는 것이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첫째, 지혜가 모자라지 않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물어 봐도 생각지도 않은 말들을 성령님을 힘입어 하게 됩니다. 둘째, 영혼에 기쁨이 모자라지 않습니다. 마음에 기쁨이 늘 넘칩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평안한 기쁨이 마음 속에 꽉 차게 됩니다. 셋째, 물질로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3년 6개월 동안 가뭄으로 인해서 온 백성이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임금의 정책을 책망하니까 그 아내 이세벨의 마음이 악독해져서 선지자들을 모조리 잡아 죽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아무것도 없이 도망을 갑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디로 가라야까?" "그렇지 않기로 가거라." 그러지 않기로 가서 밤을 지새고 이튿날 아침이 돼니 엘리야의 머리 위에 까마귀가 한 마리 날아와 떡을 물어다 놓고 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까마귀를 시켜서 떡을 보내 주셨군요." 엘리야는 아침마다 까마귀가 물어다 준 떡을 먹고 시냇물을 마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시냇물이 다 말랐습니다. "하나님 물이 없었습니다." "사르밧 땅으로 가거라." 사르밧으로 간 엘리야는 길에서 한 과부를 만났습니다. "물 한그릇 주시오." "네" "물을 가지고 올 때 떡도 조금 가져오시오." 과부는 짜깁막 남은 가루로 아들과 함께 떡을 해먹으려던 참이었습

니다. 사람이 물질이 넉넉하면 마음도 부드러지만 먹을게 없어 궁핍하면 마음도 송곳처럼 남을 찌르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참으로 훌륭합니다. '한 개 더 먹고 죽으나 덜 먹고 죽으나 죽기는 마찬가지인데 한 개 더 먹고 죽으니 선한 일이나 한 번 하고 죽자' 그 마음이 복받을 만합니다. "예" 그리고는 돌아가서 떡을 구워가지고 물과 함께 가지고 엘리야에게 갑니다. 물과 떡을 먹고난 엘리야는 "집에 돌아가서 떡을 해먹어야지. 왜 앉아 있노?" "네?" "빨리 돌아가서 떡을 해먹으라고. 가봐 가루통에 가루가 그대로 있을거야."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서도 집으로 돌아가 가루통을 열어보니 가루가 있습니다. 이튿날, 그 다음날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그 과부와 그 아들은 3년의 흉년이 지나도록 잘 먹고 지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살기를 원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데 젊은 사자가 먹을 것이 없어 주리는 때가 있을런지 몰라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모자라는 법은 없습니다.

다윗이 부하를 육백 명이나 끌고 도망다니는 동안 늘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적 중의 이적입니다. 창고가 없는데도 농사를 안 지었는데도 때를 따라 준비했다가 주십니다. 세상 부귀 따라가면 믿을 팔아먹고 육신도 거지되지만, 세상부귀 분토처럼 알고 하나님만 바로 섬기면 믿을 주시고 물질도 주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의 얼굴 광채가 비쳐오면 억울했던 것의 만 배나 복을 받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돈부터 찾으시겠습니까, 하나님부터 찾으시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무서워 조심하는 사람에게는 다윗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고생을 조금 하더라도 우리 회 사손들은 고생 안하고 잘 사는 날이 옵니다. 그 날을 위해서 고생할지라도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는 천국의 트럼펫 소리

박인기
(집사, 에바다부 교사)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목소리로 찬양할 수도 있고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 수도 있고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으로 찬양하느냐?'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어떤 마음가짐으로 찬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자연을 볼 때 저절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라는 노래가 나온다면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것이 분명합니다.

다. 노래는 소리로 표현되지만 노래하기 전에 이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을 소리내어 입으로 표현하든, 소리없이 손으로 표현하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열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훌륭한 성악가의 찬양을 좋아하시고 마음으로부터 드리는 음치의 찬양은 싫어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소리나는 찬양만 받으시고 소리없는 찬양은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4-1교구 마리아전도회 이야기

남편 이야기

이정미
(집사, 4-1교구)

우리가 올해 전도회로 모인지 벌써 아홉번째인데 서로의 이름과 사는 아파트 그리고 아이들을 아는 정도였다. 몇몇 성도들 외에는 보편적인 것들만을 알고 매달 전도회라는 이름으로 만났다. 회원들의 가정을 알 수 있는 기회로 마련한 것이 이번 행사였는데 우리가 서로의 가정을 남편을 통해 엿보고자 했다. 또 남편의 흥이 되든지 자랑이 되든지 어떤 문제를 이 자리에서 해결할 수는 없었지만 이야기를 통해서 서로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가정을 이해할 수 있었다. 어려움 있는 가정의 기도제목도 물론 찾을 수 있는 기회였다.

행사를 진행하는데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분씩 말씀해 주시기로 했는데 퇴근 후 외출을 절대 허락하지 않는 남편이 아내의 저녁 강의를 허락할 만큼 너그러워지며 "당신이 가장 행복한 여자"라고 은근히 아내를 격려하였던 집

사님도 계셨고 가족들의 모처럼 의식때 항상 사람 수보다 1-2인분 덜 시켜서 적당량만 먹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검소함을 보이시는 남편 집사님, 또 화장실이 한 개인 아파트에서 아침 시간이면 벌어진 가장의 화장실 독점 사용이 지각으로까지 이어졌다는 얘기에 몇 가정

이나 동참하며, 가장의 권위가 화장실 사용에도 있음을 얘기했다. 남편이 집에 있을 때면 꼭 옆에 있어야 한다는 행복한 투정도 있었고 기억력이 너무 좋은 남편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신의 모습이 나약해 보인다는 흉아닌 자랑도 있었다. 베드로전도회의 남편을 둔 집사님은 세월의 연륜을 느끼듯



오늘은 에바다부 개교 8주년

오늘은 교회학교 에바다부 개교 8주년이 되는 주일이다. 에바다부는 청각장애인들이 모여 예배하며 교육을 받는 교회학교의 한 부서이다. 오늘 개교 8주년을 맞는 에바다부는 오전 9시에 기념예배를 드린 후 10시부터는 친교의 시간을 가지고 저녁 찬양예배시 수화찬양을 하게 된다.

이번 에바다부 설립 8주년 기념예배에서 손으로 드리는 수화찬양은 하늘의 문을 여는 천국의 트럼펫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돌릴 것이라 확실히 믿어 마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는 흔히 다른 사람이나 사물들을 볼 때, 보통에서 벗어나면 비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적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을 비정상인으로 보고 어렵게 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과 비정상이란 것은 전적으로 상대적인 것일 뿐 인간을 평가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잘 듣는 사람이 듣지 잘 듣지 못하는 사람이든지, 소리내어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든지 목소리로 노래를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바라면서 마음과 뜻을 모아 입으로 그리고 아름다운 손짓으로 임마누엘의 하나님께 함께 찬양을 드리며 영광 돌립시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시 150:6)

※ 박인기 집사는 청각장애인으로 현재 에바다부 교사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편집자>

수화로 찬양드리고 싶어요

이연실

(에바다부 학생,
서울신회동아학교 고등부 3년)

저는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농아인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찬양을 부르며 살고 있습니다.



어릴 때, 하나님께 대해 모르고 지내던 중 초등학교 4학년때

친구의 전도로 농아인 교회에 다니면서부터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지만 그분의 뜻을 잘 몰랐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서서히 주님의 뜻을 깨달았지요.

때로는 시련이 나에게 다가올 때 주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적도 많았지요. 하지만 이제는 소리를 내며 찬양을 부르지 못하더라도 그보다 더한 진실된 마음이 담긴 손짓으로 하는 수화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 이연실 학생은 청각장애인으로 에바다부 학생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편집자>

제2회 외국인근로자 초청전도집회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초청합니다

영여교육부에서는 이번 추수감사절에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롭고 형편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들을 초청하여 예배 및 친교, 의료 서비스, 점심 식사 및 선물 증정을 통해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주위에 이런 외국인들이 있으시면 전도 차원에서 인도하여 주셔서 이번 행사에 꼭 초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깨끗이 손질한 주로 겨울 옷가지나 기타 생활에 요긴한 생활 필수품(비누, 치약 등 세면도구 일체, 각종 세제류 및 휴지, 각종 식용 통조림 등)들을 이들 외국인들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뜻이 있는 성도들은 11월 10일(주일)까지 영여예배부(복지관 지하1층 가나홀)로 가져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일시 : 1996년 11월 17일(주일)
오전 9시-오후 2시
· 장소 : 복지관 지하1층 가나홀
· 문의 : 이승림 목사(552-8200)
이부성 집사(757-6191)
장충균 집사(562-8494)

토막소식

▶ 유아부에서는 오는 10월 27일 오전 8시 50분과 11시에 교육관 212호에서 새친구 학부모초청잔치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유아부의 학부모와 교사들은 기도로 준비하며 주위의 어린이들과 부모들을 전도하고 있다. 교육하기에 가

초등부, 초청전도집회 10월 27일(주일)

교회학교 초등1~6부는 10월 27일 초등부 전 교회학교의 초청전도 집회를 실시키로하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부모가 3부예배에 참석하기 때문에 어린이가 못오는 경우가 있어 초등부에서는 초등부 2부예배(오전 11시)를 실시하고 있음을 알고 부모들이 어린이를 데려 나오기를 바라고 있다.

진로지도 어떻게 하세요

기독교인으로서의 자녀 진로지도 어려우시죠? 나의 경험이나 감정 또는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들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성경 속의 해결 방법을 정확히 배워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가시면 어떨까요?

- 강사: 노은영 집사
(서울시 교육청 장학사)
- 일시: 10월 13일(주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교육관 507호

장 좋은 때이며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있는 어린이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가르치고 있는 유아부에 3, 4세 자녀를 보내어 미래의 천국 일꾼으로 양육하기를 바라고 있다.

▶ 고등부에서 주관하는 수험생 및 취업생을 위한 학부모기도회가 10월 14일부터는 대입수능시험 당일인 11월 13일까지 매일 오전 10시~11시에 베다니

홀에서 계속된다.

▶ 청년1부는 지난 주일(10월 6일) 청년부 전회원과 초청된 선배들이 함께 모인 가운데 제27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축제적인 분위기 속에 진행하였다. 관심을 끌었던 제28차 회장단에는 회장에 허 경 형제(총신 신대원 2학년), 남 부회장에 변성주 형제(임마누엘 찬양대), 어부회장에 이미희 자매(사랑부 교사)를 각각 선출했다.

▶ 새가족부에서는 오는 10월 22일 속리산에서 양육교사 수련회를 갖는다.

▶ 가브리엘찬양대에서는 10월 20일 박경한 목사를 모시고 대원들의 영적 성장을 위한 특강을 실시한다.

▶ 제8교구에서는 오는 10월 20일 4부예배 후 교구 모임시간에 만나홀에서 96년도 가을 교구잔치를 실시한다. 그동안 8교구에서는 가족 중 믿지 않는 가족들과 태신자들이 복음으로 변화되도록 하기 위하여 기도하여 왔는데, 이날 모임을 통해 교제를 나누며 예수 사랑을 전하게 된다.

▶ 선교위원회에서는 금년도 단기 선교평화회를 오는 10월 16일 수요일 2부

예배 후 칼빈홀에서 갖는다. 단기선교에 참가했던 성도들과 선교에 관심있는 성도들의 참석을 바라고 있다.

중등1~3부 연합 시와 찬양의 밤

중등1~3부는 10월 26일(토) 연합으로 '96 시와 찬양의 밤 행사를 갖는다. 당일 오후 3시부터 교육관 1층에서 시화전을 열고, 이어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갈릴리홀에서 찬양의 밤 행사를 갖는다.

당일 찬양의 밤 시간에는 시 낭송, 독창, 중창, 독주, 성극 등의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중등1~3부 학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학교 친구들을 초청해 함께 올 수도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신동(중등1부, 481-3119), 박성호(중등2부), 이준석(중등3부, 292-5761) 선생님께 문의하면 된다.

◀ 선교지에서 온 소식 - 뉴질랜드 ▶

믿음의 선교 동역자님들께

조 동 원
(목사, 뉴질랜드 협력선교사)



하 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참으로 오묘함을 찬양하며 영광드립니다. 하 나님은 이곳에서 새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나무와 푸른 잔디에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나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어느새 이웃집 담장 너머로 한국에서 보던 벚꽃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목련꽃도 피고 수양버들과 같이 생긴 나무에 연한 초록물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봄을 알리는 소식입니다.

뉴질랜드 충현교회 소식

봄과 더불어 우리 뉴질랜드 충현교회도 가지개를 펴고 있습니다. 교회는 현저인 교회를 빌려서 주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예배와 교회학교와 친구를 모두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놓고 집회를 갖지는 못합니다. 성경공부도 교회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청년대학부 모임이 사택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중고등부 토요일집회도 저희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공부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국 이상으로 이들을 위한 선교가 시급함을 생각해보십시오. 그러나 아직 모든 것이 낯설어서 직접적으로 뛰어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교회에 나오는 학생들을 바로 세우는 것에 시급함을 느끼기에 이렇게 교회학교 모임을 저희 가정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목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성경공부 모임을 장년부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경공부시 모이는 인원은 청년대학부가 10여명, 중고등부가 10여명, 목요성경공부에도 10여명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기쁜 일은 새롭게 출석하기 시작한 한 가정의 목요성경공부에 참석한 일입니다. 대부분 기존 신자들로서 기초부터 성경공부를 하고 있는데 새신자도 함께 공부를 함으로 인하여 같은 삶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9월부터 구역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구역예배를 통하여 주간에 성도들이 모여서 안부를 나누는 것이 참으로 귀한 것임을 새삼 깨닫게 해주셨습니

다. 저는 구역을 돌아가며 참석하여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단계를 세워서 뉴질랜드 충현교회 성도를 온전히 세우고 뉴질랜드에 있는 성도들을 온전히 세우는 성경공부로서 코르스웨이 성경공부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뉴질랜드 충현교회는 말씀공부를 중심으로 하는 교회가 되어 성도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주일에배에 대하여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은 약 70여명이 됩니다. 예배는 우리 충현교회의 순서를 그대로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찬양대는 조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고,대학,청년부를 중심으로 한 기악합주단이 10여명으로 이루어져서 예배시간마다 어린이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두 기쁨으로 참여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에도 한 가정이 교회에 등록을 하였습니다. 한국에서는 교회에 다니지 아니하신 분입니다. 이들은 차례집 성도입니다. 이 가정은 뉴질랜드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가정 소식에 대하여

저희 가정은 8월 말에 집에 도착하여서 짐정리를 마쳤습니다. 물론 아직 책정리는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책정리는 서서히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2번에 가도를 부탁드린 취업비자문제가 아직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한다면 이제 모든 것이 끝나야 할 단계인데 아직도 시작의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변호사의

말로는 10월말이 되어야 끝난다고 하는데 그때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은 한국에서 가지고 온 교과서와 동화책 등을 읽거나 한국의 친구들에게 편지를 쓰거나 한국에서 다니던 학교의 담임선생님에게 소식을 드리며 나름대로 재미있게 지내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뉴질랜드 정착을 위한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매일 가정예배시간을 통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19일 목요일에는 처음으로 아이들과 오클랜드 시내를 구경하고 왔습니다. 또 21일 토요일에는 중,고,대학부,청년부들이 공원으로 야외예배를 나갔다가 왔습니다.

신년도 준비

벌써 신년도를 힘차게 나가기 위해서 새롭게 교회 조직과 모든 일을 준비해야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먼저 부족한 중부터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준비하는 생활을 하고자 합니다. 10월과 11월을 신년도를 위한 준비의 달로 삼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뉴질랜드에 와있는 충현의 성도들과의 교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기전 장로님의 아드님 되는 우재원 집사님이 여기서 약간 떨어져 있는 곳에 거하고 있어서 다른 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남희 집사 가정은 가까이 살고 있지만 현재 타 교회에 출석 중에 있습니다. 신년도에 이들과 더불어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리면서

뉴질랜드 충현교회를 위하여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여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 뉴질랜드 충현교회는 바른 예배, 바른 선교, 바른 일꾼 양

성, 바른 봉사와 섬김의 공동체가 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부족한 중의 기도의 무릎이 단단해지고 말씀 사역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형제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승

리의 생활을 하는 후원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아울러 여러분의 기도와 물질의 후원으로 뉴질랜드 충현교회가 든든히 서가며 부족한 중에게 많은 도움이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도 제목

1. 교회의 성장과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2. 뉴질랜드에서 정착이 잘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3. 자녀들을 교육시킬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4. 취업비자를 속한 시일내에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5. 새로 시작한 성경공부(목요성경공부, 청년대학부 제자훈련, 청소년 토요성경공부)가 주 안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은혜 충만한 모임이 되게 하소서.
6. 새로 조직할 전도회 조직이 주 안에서 행통하게 이뤄지게 하소서.
7. 성령 안에서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되게 하소서.
8. 말씀과 기도와 섬김의 사역자가 되게 하소서.
9. 부족한 중이 선교 사역에서 항상 승리하도록 인도하소서.
10. 선교회는 교회로써 복음 증거의 장이 열리게 하소서.

조 동 원 목사 드림

조동원 선교사 주소 및 전화번호
PASTOR DONGWEON, JO
11B Kiterca Tee, Rothesay Bay
Auckland N. Z.
TEL 64-9-479-2446
FAX 64-9-479-2406